

| 제 목  | 준비된 마음과 행동 |
|--|------------|
| <p>[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0.11.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소아 심폐소생술 포함)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2년도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2024년 보육사업안내)</p> <p>“선생님들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하세요!”</p> <p>매년 실시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었기에 큰 의미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하였다. 이론과정을 마치고 실습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가는 길, 퇴근 후의 피로감이 몰려왔고 이 교육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교육장에 도착한 나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교육을 듣기 시작하였다. 교육장에 계신 전문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다양한 상황에 관해 설명하셨고,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강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애니 인형과 사람 흉부 모형, 자동제세동기(AED) 등을 사용하여 심폐소생술(CPR)실습을 하고 짝을 맞추어 기도 폐쇄 실습기구를 착용한 후 하임리히법을 해보며 실질적인 교육을 받던 도중 문득 ‘내 앞에서 이런 위급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나는 과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신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될 날이 나에게도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p> <p>며칠 뒤 점심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라며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음소리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살피며 건강교육과 안전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그날의 메뉴 중에는 새송이 조림이 있었고, 매끈한 새송이 조림을 씹지 않고 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애들아, 새송이버섯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꼭꼭 씹어서 먹어보자”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놀란 눈으로 교사를 바라보는 한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손으로 목을 감싸기 시작하였고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 보</p> |            |

이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그동안 배웠던 안전교육의 내용이 떠오르며 하임리히법이 생각이 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서둘러 아이의 등 뒤에 서서 주먹을 권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을 배 윗부분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친 후 배꼽에서 명치 사이의 배 부위를 두 손으로 위로 쓸어올리듯 강하게 밀어 올리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였다. 안전교육 실습 때 기도 폐쇄 실습기구에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음식물이 나오는지 경험했던 느낌을 생각하며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처음 몇 번의 시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압박을 가하자 아이의 입에서 새송이버섯 조각이 튀어나왔다. 아이는 몇 번의 기침을 하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의 울음소리에 안도감을 느끼고 긴장감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당시 상황을 부모님께 그대로 말씀드렸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부모님은 많이 놀라신 듯했지만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큰 일로 번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안도하셨다. 이후 원장님과 함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행히도 아이는 큰 이상 없이 무사히 회복되었다.

멀고도 먼일이라 생각했던 응급 상황이 이렇게 가까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임리히법을 할 수 있었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나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실습교육을 통하여 실제 상황처럼 교육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응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라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그 아이는 의식을 잃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반복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나는 이날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 이상의 사명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은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짧은 순간,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교육을 통하여 준비된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피곤하여도 교육은 필수!

“선생님들~~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하세요!”